

## 제4절 조선시대 순천의 사람\*

사람은 조선시대 지방에서 유학을 공부하며 후진을 양성하던 문인이나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의 실체는 시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그 기준도 달랐다. 원래 이 말은 조선 전기인 성종 때 관직에 대거 진출하여 정치세력화한 지방학자들의 이전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래 관직을 갖지 않은 재야의 순수학자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태, 즉 중앙 진출의 여부가 이들을 규정짓는 기준이 못 되었고, 따라서 사람이란 말도 점차 그 용도를 잃어갔다.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집단의 성격이나 배경도 지역마다 달랐다. 예컨대 ‘영남사람’의 경우는 그들 지역에서 이전부터 존재해온 토호세력의 후예들이 많았던 반면, 그외 지역에서의 사람은 오히려 기존 토호세력과 무관한, 또는 대립되는 존재로 인식되던 무리들이었다.

따라서 사람을 지방에 거주하는 엘리트집단 정도로 규정한다면 큰 무리가 없겠으나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사족(士族)’이나 기타 다른 표현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각 지역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림’이라고 표현되는 집단세력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유림이라고 표현되는 집단과 사람 또는 사족집단을 구별해야 하는지, 구별한다면 또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이 글은 조선 전기 순천지역에 거주했던 지식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활동과 업적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은 매우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선 이 지역 사람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은 읍지류에 근거한 것이다. 실록 등 연대기 자료에서 이들에 관한 기사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조선 전기까지 이 지역에 살았던, 순천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들에 대한 기록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거하였고, 그 후손들은 그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 전기나 그 이후에 이 지역으로 들어온 사족들의 경우는 그들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비교적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토성들의 경우와 달리 이 지역 후손들의 변성에 힘입은 바 크다. 예컨대 1784년에 조현범(趙顯範 : 1716~1790)이 편찬한 『항남악부(江南樂府)』가 그러하다. 저자는 이곳의 대표적 사족의 하나인 옥천(玉川) 조씨(趙氏)로 이들은 조선 중기 이후 자손들이 번창하여 이를 배경으로 선조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을 다수 발행하였다. 이 책은 이 지방의 주요 사실(史實)과 인물행적을 정리한 것으로 이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나 그의 기술은 자신의 선조처럼 조선 전기에 이곳에 입향하여 뿌리를 내린 주요 사족들의 행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조선 전기의 순천사람에 대한 이해는 조선 후기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기존의 토성이 쇠퇴하고 외부에서 온 새로운 사족들이

\* 제4절은 정승모(鄭勝謨) 집필임.

자리를 잡아가는 조선 전기 순천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순천사림의 형성과정에는 이곳으로 입향해온 외래 사족들 외에도 이들과 단기간 교류하였던 외부 인사들의 영향이 컸다. 이들은 지방관(地方官)·교수관(教授官) 그리고 이곳에 유배된 전직 관리와 학자들이다.

조선 중기의 임진·병자 양란이 일어났던 때는 사림의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난을 계기로 사림의 후손들이 지역의 유력한 사족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사림간의 인맥을 파악하는 문제도 그들의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외래사족들의 통혼관계는 이들의 정착과정을 설명해준다.

병란 후의 사림들의 활동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특히 이 시기는 향안이 작성되고 향교가 중수되는 등 지역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족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이후 순천에서는 사림에 관한 한 질적 변화보다는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것 같다. 즉 인물 개개의 성격이 부각되는 전기 사림의 성격은 사라지고 그 대신 성씨별로 집단화하였다. 이를 향안에서 향집강체제로의 변화와 서원 및 사우의 건립현상 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